

# ‘셔틀콕 여제’ 안세영, 생애 첫 올림픽 금빛 스매싱 눈앞

준결승서 툰중 2-1 꺾고 銀 확보  
28년 만에 여자단식 결승 진출  
오늘 중국 허빙자오와 金 다투



광주체고 출신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생애 첫 올림픽 정상 정복에 한걸음만 남겨졌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4일(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사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8위 그레고리아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을 2-1(11-21 21-13 21-16)로 꺾었다.

안세영은 조별리그 A조 1차전(루마니아의 칼로야나 날반도바 2-0승)에서 2승과 2차전(프랑스의 치셰페이 2-0승)을 모두 이겨 2승으로 8강에 직행했다.

안세영은 8강전서 천적으로 불린 야마구치 아카네(일본·6위)를 2-1로 물리친 뒤 이날 툰중까지 꺾고 결승에 올랐다.

2020 도쿄 대회에서 8강에 머물렀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하며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확보했다. 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로서는 1996 애틀랜



안세영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사펠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 그레고리아마리스카 툰중을 2-1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올림픽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오른 선수가 됐다.

안세영은 5일 오후 4시 45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세계랭킹 9위 허빙자오(중국)와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3전 전승으로 조별 예선을 통과한 허빙자오는 8강에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세계랭킹 2위 천위페이(중국)를 꺾는 이번

을 연출하며 4강에 올랐다.

허빙자오는 준결승에서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 1게임을 내주는 등 경기 내내 고전했으나 마린이 2게임 때 부상으로 기권을 선언해 결승 진출권을 손에 넣는 행운을 얻었다.

안세영은 허빙자오와 상대 전적에서 8승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 8강에서 허빙자오에 패배한 경험이 있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 그랜드슬램의 퍼즐을 맞추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난 12일 프랑스로 떠나기 앞서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다. 완벽하게 끼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 한국에 돌아올 때는 금메달과 함께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입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코펜하겐)와 아시안게임(항저우)을 제패한 안세영은 이미 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의 절반을 채웠다. 가장 큰 산인 올림픽에서 우승한다면 자신의 목표인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최동환 기자 cstone@jnilbo.com

## ‘4타석 사이클링 히트’ KIA 김도영 7월 월간 MVP 노린다… 3번째 도전

박영현·앤더슨·하트 등과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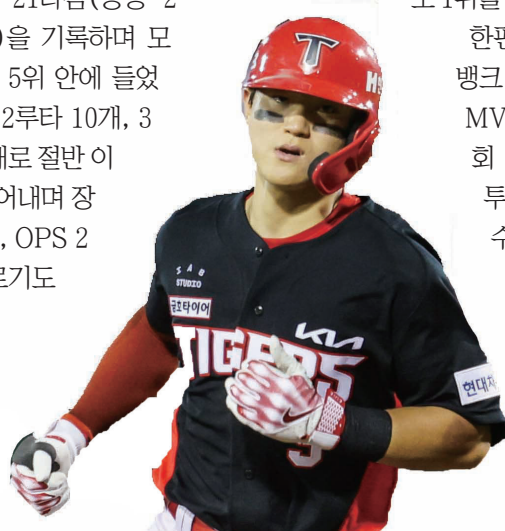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사진)이 3~4월과 6월 월간 MVP 수상에 이어 7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7월 월간 MVP 후보를 지난 2일 발표했다. 후보에는 김도영을 비롯해 KT위즈 로하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한화 이글스 안치홍(이상 야수), KT 박영현, SSG랜더스 앤더슨, NC다이노스 카일 하트, 롯데 자이언츠 반즈(이상 투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3~4월과 6월 월간 MVP에 이어 세 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김도영은 7월에도 4타석 사이클링 히트, 최연소·최소경기 100득점 선점 등 굵직한 기록들과 함께 타격감을 이어나갔다. 22경기에서 타율 0.407(4위), 33안타(공동 2위), 7홈런(공동 2위), 21타점(공동 2위), 25득점(1위)을 기록하며 모든 공격 지표에서 5위 안에 들었다. 또 33안타 중 2루타 10개, 3루타 1개, 홈런 7개로 절반 이상을 장타로 만들어내며 장타율 0.815로 2위, OPS 2위(1.288)에 오르기도 했다.

김도영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는 KT 마무리 박영현이 전



망된다. 박영현은 7월에 치른 19경기 중 11경기, 13.2이닝을 투구하며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평균자책점 0.00과 함께 8세이브로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앤더슨과 하트 등도 유력 후보군이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5월 리그에 데뷔한 SSG 앤더슨은 7월 출전한 4경기에서 3승을 올리며 다승 공동 2위, 평균자책점 1.80으로 4위에 오르는 등 투수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달 11일 문학 롯데전, 19일 문학 키움전, 26일 문학 두산전 3경기에서 모두 10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KBO 리그 역대 8번째로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했다.

NC 에이스 하트는 7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의 호투를 이어가며 평균자책점 0.55로 해당 부문 월간 1위에 올랐다. 또 7월에 39개의 탈삼진을 더해 이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팬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오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최동환 기자

## 송광중 성해인, 전남도지사배 전국학생골프대회 우승

2라운드 합계 9언더파 135타  
중거리 퍼터 집중한 게 원동력  
“국가대표로 뛰는 게 당면 목표”

광주 송광중 성해인(3년)이 제19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중·고등학교골프대회 여자부 정상에 올랐다.

성해인은 지난 1일 무안컨트리클럽 동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2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낚으며 4언더파 68타를 기록, 2라운드 합계 9언더파 135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총 35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예선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120명이 출전하는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 성해인은 지난달 31일 본선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 백규리(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 2년)와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섰다.

2라운드에서는 3번홀까지 파를 연속하다 4번홀(파4)에서 버디를 성공시켰고, 연속 파를 기록하다 12번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낚은 뒤 14번홀(파3)과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성공시키고 18번홀에서 파로 마무리하며 2위 구민지(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 2년)에 3타 차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성해인은 “덥고 습한 날씨에 힘든 경기였지만 미국대회를 경험으로 차분하게 플레이를 진행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 또 4~5m 중거리 퍼터를 집중있게 플레이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그동안 아이언 샷 방향성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아이언 샷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향후 대회에서도 좋은 샷 감각으로 우승해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를



송광중 성해인이 지난 1일 무안컨트리클럽 동코스(파72)에서 끝난 제19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중·고등학교골프대회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해인 선수 제공

많이 획득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때 할머니와 함께 취미로 운동을 시작한 성해인은 재능을 눈여겨 본 국가대표 출신 프로골퍼 박형욱의 권유로 5학년 때부터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파워가 남다른 데다 꾸준한 노력을 더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인 성해인은 6학년때 광주골프협회장배 우승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중학교 진학 후 각종 전국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성해인은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인 제1회 박세리&소렌스탐 인비테이셔널 아시

아 대회에서 3위 입상했고, 11월 워머스배 전국청소년골프대회에서 첫 전국대회 우승을 맛보면서 기량이 급성장했다..

올해는 6월 제2회 클럽디 아마추어 예코챔피언십 준우승과 같은달 박세리가 주최한 미국 청소년 주니어 골프대회 우승 등으로 꾸준한 기량을 발휘하다 이번 전남도지사배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게 됐다.

퍼터가 자신인다는 성해인은 “평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 받는 아이언 샷의 정교함을 더 보완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싶고, 3년 뒤에는 프로에 입문해 저스틴 토마스처럼 세계적인 프로골퍼가 되는 게 꿈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